

靑 초청 원내대표 회동, 또 한국당만 “NO”

김성태 “국면전환용 의미 없어”…이번에도 ‘반쪽’ 예고
여야 3당 29일 교섭단체 회동…현안·靑 만남 입장 조율

청와대 초청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자유한국당의 부정적 반응으로 반쪽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 초청 회동’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25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한국당은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여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의 참여 설득을 위해 직접 접촉에 나서며 대화 분위기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우 원내대표는 우선, 이날 국민의

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국회 집무실을 깜짝 방문했다. 2월 임시국회 현안 논의를 최우선 화두로 내세웠지만 청와대 회동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 3당은 이르면 오는 29일 교섭단체 회동을 갖고 2월 국회 현안과 더불어 청와대 회동 등에 대한 입장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월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조율해보기 위한 것”이라며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서 김 원내대표는 ‘보자고 하면 만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도 “(원내대표들끼리) 조만

간 만나기로 했고 법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라며 다음주 중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기자들에게 청와대 회동과 관련, “지난해 5월에 만나고 1월에 제안하는 것은 협의의 태도가 아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서는 참여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회동에는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청와대 원내대표 회동 추진 방침이 나온 직후 출근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별도로 만나 만찬을 함께했다.

이와 관련, 우 원내대표는 “사적인 이야기를 주로 나눴다”며 “전반적으로 협력을 잘 해보자는 정도의 이야기만 있었다”고

전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무수석도 그렇고 우 원내대표도 노력하고 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에는 부정적”이라며 “제1야당이 부정적이라면 의미가 많이 퇴색하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이 중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들에 대한 여론과 국민 정서가 너무 안 좋으니가 국면전환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애들 장난치는 데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보복정치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국면전환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은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대통령 “내달까지 청년일자리 특단의 대책 마련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이재은씨, 문 대통령,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 부의장. /연합뉴스

靑 일자리 점검회의…“긴급자금 투입·중장기 대책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러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종합수립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달라”고 강도높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경제 문제 그 이상으로, 젊은이들의 꿈·희망·미래를 지켜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유관부처의 정책추진 의지를 강하게 질타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주문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해 왔고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추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닐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일자리는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가계소득의 원천으로, 특히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삶 그 자체이자 꿈과 희망”이라며 “취직을 해야 경제적 독립, 결혼과 출산, 더 나은 미래도 꿈꿀 수 있다. 청년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靑 행정관들 지방선거 출마 ‘관심’

광주·전남출신 5명… 정부 높은 지지율에 선호도 높아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에 입성한 광주·전남 출신 행정관들의 오는 6·13 지방선거 출마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면서 함께 일을 하는 청와대 행정관들의 정치적 입지가 커지면서 이들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2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 지역 출신으로 청와대에 근무하는 행정관들은 박시종(광주·국정상황실), 윤영덕(담양·민정수석실), 최치현(장흥·정무수석실), 조영종(화순·시민사회수석실), 김병내(영광·정무수석실) 등이 있다.

이중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공식 선언한 행정관은 없지만, 김병내 행정관은 광주 남구청장 출마가 예상된다.

김 행정관은 남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전 강운태 광주시장의 보좌관과 광주시장 민원실장을 지내 남구에서 입지가 넓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청와대 참모진 중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김 행정관은 남구청장 출마 예정자 중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25일 쿠키뉴스가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한 광주 남구청장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선 김 행정관이 30.3%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동안 광주 남구 거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총 1만7869명을 대상으로 통화시도했으며 표본수는 503명(응답률 2.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된다.

현재 민주당 후보로 남구청장 출마에 나섰거나 거론되는 인물은 성현출 전남구의원, 김점기 남구의원, 정재수 광주도시철도공사 경영본부장, 조성철 전 오마이뉴스 광주전남본부장, 임형진 전 광주시의원, 김용집 광주시의원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강운태 전 광주시장과의 인연이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이 주목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개헌 복병된 ‘국민투표법 개정’

선관위 “재외국민 부분 위헌…국민투표 하려면 개정 필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위해선 관련법인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25일 “국민투표를 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 현 상태로는 국민투표 명부 작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부분이 위헌이기 때문에 국민투표 명부를 작성할 수 없다”면서 “위헌 결정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국민투표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앞서 지난 2014년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15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문대통령 국정지지율 59.8%

리얼미터, 남북 단일팀 구성 논란에 첫 50%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성인 150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지난주 주간집계보다 6.2%p포인트(p) 내린 59.8%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3%p 오른 35.6%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60% 아래로 내려갔다.

리얼미터는 “남북 단일팀 구성 등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이 ‘현승월 점검단’과 2·8 건군절 일병식으로 번지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째 오차범위를 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26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0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 악 학 과	7
	실용음악학과	10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6(토) ~ 1.9(화)
	• 전 형 일 : 2018. 1. 16(화)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8(월) ~ 17(수)

• 전형일 : 2018. 1. 23(화)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6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8(월) ~ 1.17(수)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1. 23(화) 오후 2시 30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 학교 로 오십시오!!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1.26(금) ~ 2.2(금)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8. 2. 6(화) 오후 2:30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8. 2. 6(화) 오후 2:40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2018. 2. 6(화) 오후 2:40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임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